

뜻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㉔ 관현(官憲)에 잡히다

을사조약 이후 한일합방으로 일본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비로관을 크게 만들어 머리에 쓰고 검은 장삼을 걸친 한 스님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구적장신의 그 스님은 맨발에 한손에는 단뱃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고기를 주장자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 괴승(怪僧)의 정체는 바로 경허 스님이었다.

마침 거리를 순찰하던 일본 헌병 보조원 두 명이 정체를 명하는 행색을 한 스님의 괴이한 행색에 산적 괴수로 오해해 다짜고짜 경허 스님을 체포했다.

스님을 헌병대로 끌고 가려 하는데 경허 스님이 입을 열었다.

“이놈들아, 끌고가려면 너희들이 나를 메고 가거라.”

경허 스님은 땅에 넘죽 주저앉아 버렸다. 두 헌병 보조원은 하는 수 없이 긴 장대를 갖고와 경허 스님의 양다리나 양팔을 밧줄로 꿰뚫어 묶어 들쳐 메고 헌병대로 데려갔다.

두 헌병 보조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 본관대로 향하는데 이에 대한 경허 스님의 말이 걸작이었다.

경허 스님은 “흥, 경허가 그래도 어지간한가 보구나!” 하고 통쾌한 웃음을 지었다.

헌병 보조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한 헌병 보조원이 통명스런 말로 “여보 대사(大帥), 그 무슨 소리요?” 했다.

경허 스님이 다시 한바탕 웃으며 말했다.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지 내 발로 걸어 갈 수가 있겠느냐. 이놈들아!”

더욱 화가 난 헌병 보조원들은 경허 스님을 내려놓고 손발에 들어 맨 밧줄을 풀

었다.

“그럼 걸어갑시다.”

헌병 보조원들은 경허 스님에게 밧줄을 재촉했다. 경허 스님은 한참을 건다가 다시 크게 웃었다.

“흥, 흥! 경허가 그래도 어지간하다. 이놈들아, 내가 내발로 걸어가지 너희들에게 매어가서야 어디 되겠느냐?”

헌병본관대에서 일본 헌병대장이 직접 경허 스님을 취조했다. 독립군의 수뇌나 산적두목으로 알아본 것이었다.

취조에서 아무 표정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경허 스님이 갑자기 지필묵을 청했다. 헌병대장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지필묵을 갖다 주게 했다.

경허 스님은 헌병들에게 양쪽에서 두루마리를 붙들게 하고 가져다 놓은 붓에 먹물을 찍어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의 휘호를 써 갈겼다. 스님의 글 쓰는 자세를 보던 헌병대장은 깜짝 놀라 자세를 정중히 했다. 헌병대장은 글을 다시 읽어보아도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경허 스님이 큰 도인임을 짐작했다. 헌병대장이 큰 절을 하며 경허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알아 모시겠습니까?”

경허 스님은 일제 치하에서 이런 일이 비 일제 했다. 강계(江界) 땅에서는 박진사로 행세하던 중 일본 경찰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공주(公州) 경찰서에서 경허 스님을 취조한 야마모토(松山) 경찰서장에게 경허 스님은 붓과 종이를 청해 일필휘지의 글을 남겼다.

“그 뜻을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하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용궁(龍宮)에 간직된 보배로운 경전도 한 낫 잡꼬대일 뿐.”

야마모토 서장은 경허 스님의 글의 깊은

경허가 어지간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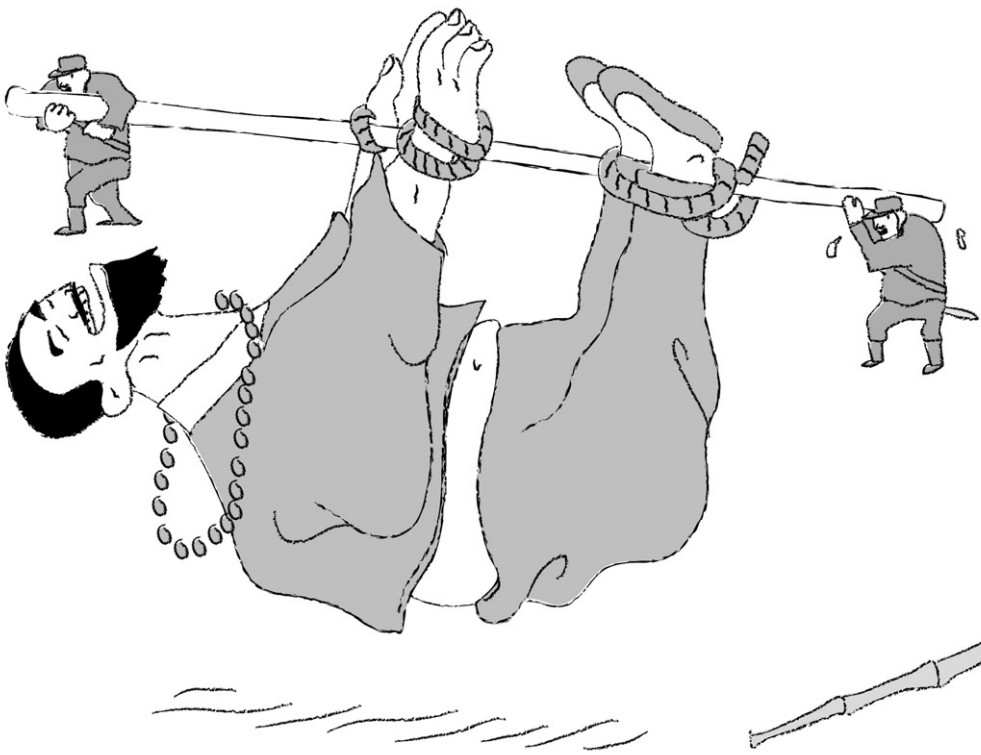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모르면 용궁 경전도 잡꼬대 일뿐” 스님 무애행에 日 헌병대장 감탄

관음보살이 북으로 행한 뜻 문자 범제자 삼아 불조의 밀전 지도

뜻을 알아보고 스님을 자기 집 내실로 모셨다.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 부인에게 일렀다.

“이 어른의 시봉을 잘 해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언제나 원하시는 대로 모시도록 하시오.”

야마모토 서장은 집안 하인들에게도 행

여나 조금도 경허 스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극진히 봉대토록 했다.

며칠을 웅송한 대우를 받던 경허 스님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서장 집에 보관된 금고를 털어 시가(市街)에서 술을 사 먹은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그 뿐만이 아니라 배고픈 걸인과 주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야마모토 서장은 일체 참견 하지 않고 경허 스님이 하는 대로 하게 했다. 도인의 무애행을 그대로 궤계 하는 것이 모시는 도리라고 본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 부인에게 누구도 당부해 아무도 제지하거나 홍보는 사람이 없도록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경허 스님은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다.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가 잘못해 큰 도인을 더 모시지 못했다며 못내 애석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㉕ 혜월 스님의 주벽

혜월(慧月) 스님이 정혜사(定慧寺)에서 공양주를 할 때였다. 혜월 스님은 역력고명 무형단자(歷曆孤明 無形丹子) 화두에 깊게 들었다.

하루는 의심이 매우 솟아나 뒷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1주일 동안 앉아서 공양했다.

1주일 뒤 혜월 스님이 홀연히 문을 열고 나와 은사 스님에게 화두를 깨달은 경계를 말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네 공부를 판단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은사 스님은 이어 “개심사(開心寺) 경허 스님을 찾아가 네가 공부한 경지를 지도받도록 하여

라”고 천거했다.

혜월 스님은 그 길로 개심사에 찾아가 경허 스님이 계신 선방 앞에 이르렀다.

혜월 스님은 다짜고짜 “스님”하고 부른 뒤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리까?”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이에 대해 경허 스님은 눈도 뜨지 않고 답했다.

“그 것 말고 또”

경허 스님은 큰 소리로 되받아 물으면서 동시에 눈을 딱 감고 바라보았다. 혜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벽 하나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그제야 경허 스님이 말했다.

“앉으라”

그제야 경허 스님은 불조(佛祖)의 밀전 밀맥(密傳 密脈)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삼중체를 결합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우며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3간접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mm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도리 80×35
중간대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bangalro.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